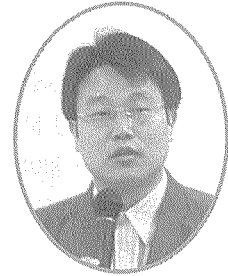




지난 4월에 열린 '도서관 문화학교'에서 '책의 기원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천정환씨

『근대의 책 읽기』 저자 천정환을 만나다

이번 도서관문화 5월호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도서관 문화학교에 지난 4월 2일(금)과 9일(금)에 걸쳐 '책의 기원과 미래'의 주제로 특강을 한 천정환씨를 만나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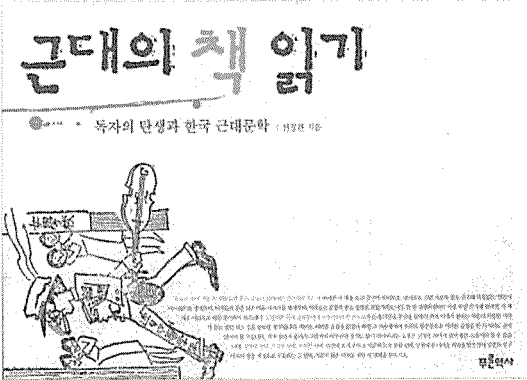
천정환*

Q 우선 재미있는 책을 읽어 즐거웠습니다. 이번 책은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간하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학술적인 내용을 대중적인 책으로 바꾸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로서 이런 작업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A 전문가나 지식인들에게는 좋은 정보와 지식을 대중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고, 대중들 개개인에게는 좋은 정보로 자기 삶을 업그레이드할 과제가 있죠. 그래서 소통이 매우 중요하죠. 전문적인 책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할 '소통'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의 책 읽기』가 이런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다행이네요.

Q 특별히 주제가 책읽기에 관한 논문이라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도서관이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요? 도서관을 이용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많을텐데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박사, 퍼슨웍 편집장 및 기획위원, 서울대·홍익대·명지대·성공회대 등 강사, heutekom@hanmir.com



A 정말 많은 도움이 됐죠. 도서관에서 근대 초기의 신문과 잡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국회도서관과 서울대 도서관을 주로 이용했죠. 서울대 신문자료실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구'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자원이죠. 도서관이 친구이자 비서이자 조연자이거든요. 집에서 편히 갈 수 있는 곳에 자료가 풍부하게 갖춰진 도서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합니다.

결국 도서관의 수준은 이용자들이 자료에 대해 얼마나 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데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높은 분'들이 많은 동네에 있어서 그런지 국회도서관은 웬지 시민들에게 문턱이 높은 인상을 주고요. 서울대 도서관은 국내 대학 도서관에서는 최고라지만 개선할 점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도서관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느끼는 불만은 도서관 직원들의 관료적인 불친절이나 무책임함(자료에 대해서 이용자보다 모르거나 애정이 없는 사서들도 가끔 만납니다.) 태도이죠.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시면 이용객은 쉽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요.

자료 목록이 웹으로 제공되는 요즘에 와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는, 검색된 정보와 실제 자료 비치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였는데 웹에서 분명히 분류기호와 서지사항이 검색된 자료가 실제로는 없었던 거죠. 이용객은 헛걸음을 하거나 하루 종일 도서관 서가를 헤매고 다니게 되죠. 웹 DB를 관리하는 어려움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적어도 '국립' 자가 붙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웹 검색 정보를 잘 갖추고 관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과제로 된 것 같네요.

Q 『근대의 책 읽기』를 읽어보니 사실 근대에 접어들면서 책 읽기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화두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역과 일본의 근대』(마루야마 마사오, 가토 슈이치 공저/임성모 역, 이산, 2000)같은 책을 보아도 역시 근대를 여는데 있어 출판과 독서문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근대 책 읽기에 있어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요? 요즘 번역서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 번역서의 문제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서구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지식으로 우리나라의 근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번역은 지식 생산 자체와 연관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지 번역은 A라는 언어에서 B라는 언어로 옮기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번역'의 수준 같은 번역 자체의 문제는 잘 모르구요. 독자적인 학문과 문화발전이 어느 정도 이뤄진 지금에도 번역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출판계를 보면 분야를 막론하고 번역서가 더 쉽고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로 되어 있는데, 책을 기획하고 써 낼 인력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Q 도서관과 책읽기의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이 독서진흥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독서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어떻게 독서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것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물론 더 높아질 여지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책 읽기 수준이 결코 낮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독서 문화의 인프라도 더 발전할 여지가 많죠. 도서관은 근대 초기부터 가난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교육·문화 기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문턱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고 책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즉 전시와 공연 기능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도서관이 다룬다면 좋겠지요. 출판산업이 위축되어 가고 책 읽기 문화의 발전이 한계에 다다른 듯한 징후가 자주 나타납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출판계와 협력하고 전체 문화 산업에 대한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지역 도서관과 작은 규모의 전문 도서관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Q 최근의 책읽기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사회의 독서경향의 변천과정이 가지는 의미와 앞으로 책읽기는 어떤 경향으로 발전해 갈 것인지 전망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최근에 출판계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합니다. 종이책 시장이 전체 대략 5조 규모인데 그중 단행본 시장은 1조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바로 문화 지출이 줄어드는데 출판시장은 구조가 취약해서 그 중에서도 큰 타격을 입는 것 같습니다. 대중의 책 읽기 문화에 대해서는 탓할 일이 아니고, 책 만드는 사람들이 구조를 강화하고 새롭고 좋은 콘

텐츠를 많이 만드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책 읽기 문화의 미래에 대해 잘라 말하기는 어려지만, 근대 이후에 정립되어온 책 읽기 문화가 변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종이책의 위상은 쉽게 낮아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은 거스르기 힘들 것 같습니다.

Q 도서관은 어쩔 수 없이 책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장서를 구성합니다. 그럴 때 연구자로서 도대체 도서관이 어떤 기준으로 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도서관의 힘은 장서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도서관 장서의 문제는 아직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A 그렇죠. 결국 도서관의 힘은 장서 규모에 있죠. 순진한 생각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도서관 장서는 지상의 모든 책이어야 한다'는 생각 밖에는 못봤습니다. 지금도 '국립'이 붙는 모든 도서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아카이브를 다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일종의 문화 기록자이자 전수자이며 지(知)의 박물관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도서관의 규모가 작아서 책을 선택해야 한다면... 글썄요. 아무래도 해당 도서관의 주된 이용객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전문성을 겨냥하는가를 중심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고를 수밖에 없을 듯한데, 이 문제는 아무래도 잘 모르겠군요. 제한된 예산으로 책을 구입해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책을 선택하시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작은 도서관일수록 특성화해서 자료를 모은다면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요? 알려진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 위주로 장서를 갖추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Q 책 서문에서 <퍼슨웹>을 영감과 글쓰기의 원천으로 소개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사실상 새로운 시대에 도서관이 인터랙티브한 형태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룹도 있는데, 도서관들이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도서관과 관련해서 어떤 도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A <퍼슨웹>은 젊은 사람들이 만든 문화네트워크이자 기획집단이에요. 논픽션을 중심으로 한 종이책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분야의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영감의 원천이라 했습니다. www.personweb.com / www.

personweb.co.kr에 가보시면 뭔가 느낌이 올 겁니다.

도서관과는 경우가 다르겠지만 인터넷서점에 가보면 책 판매자(때로는 저자)와 구매자, 그리고 독자끼리의 인터랙티브한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독자에 맞는 책을 권유해주고, 독자는 읽은 책에 대해 자발적으로 독후감을 쓰고 자신의 독서 목록과 책꽂이를 꾸며 서로 소통하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인터랙티브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참고할만 하다고 보이는데요. 어쨌건 '로그인' 하계끔 하는 웹도서관이라면 'My Page' 같은 것이 있어서 검색히스토리와 대출 목록 같은 것을 제공받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만약 가정의학 원격 의료 시스템처럼 권위있는 도서관이 지적인 가정의가 되어 독자에게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면, 이는 획기적인 일인 듯해요. 현재의 종이책 도서관이 어떤 식으로든 디지털 학술정보와 도서 정보에 있어서도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근래 번창하고 있는 지식검색 사이트나 각 학문·전문 영역에서 구축되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의 흐름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의 모든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 그외 저널과 심지어 고전까지도 웹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처럼 일정한 IP 주소에서만 PDF파일로 제공되는 정보는 사실 답답한 면이 많은데, 저작권도 보호하면서 정보 접근성도 높이는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개발되겠지요? 뭐 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당장 옛 신문이나 고전자료만이라도 쉽게 웹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신문사에서 건당 300~500원씩 받으며 웹 DB화(온전한 것도 아니고 PDF파일)된 자사 신문을 보게 하는데 이는 아주 못된, 반문화적인 행위라 생각합니다.

Q 끝으로 앞으로 선생님께서 이 부문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신다면, 독서와 도서관의 관계성을 결들여서 작업하시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추후 연구 계획은 어떠신지요?

A 책 읽기 문화에 대해 관심을 계속 가지고, 한 시대의 읽기 형성되고 대중들 사이에 전파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글을 써 볼 생각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싶는데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Q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고맙습니다. 